무제한 연임에 도덕적 해이… 구례군, 이장제도 개선 목소리

A씨, 16년간 8차례 연임하며 공금 2억2000만원 유용해 마을 '발칵'
군내 4년 이상 재임 45.5%… "임기 3~4년에 중임제 도입하자" 제안도

풀뿌리 민주주의 마을 자치의 보루로 여겨지는 이장제도가 제도적 허점과 도덕적 해이로 본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구례 한 마을 이장은 16년 동안 8차례 연임하면서 마을 공금 2억2000만여원을 유용한 사실을 들켜 주민들의 공분을 샀다.

22일 구례군 등에 따르면 구례읍의 한 마을은 지난달 총회를 열어 16년 만에 새 이장을 뽑았다.

이 마을에서는 A(62)씨가 지난 16년 동안 8차례 연임하면서 이장으로 활동했는데, 그가 마을 공금을 유용한 사실이 지난해 밝혀지면서 마을이 발칵 뒤집혔다. A씨는 마을 소유 논을 매각한 대금 1억8000만원과 도로에 편입된 부지 보상금 4000만원 등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새 이장 선출을 앞두고 50세 이상에게만 이장 후보 자격이 주어진다는 마을 규약을 만들려고 시도하며 연임 의지를 밝혀왔다.

하지만 최근 공금 유용 논란이 불거지면서 A씨는 횡령금 일부를 배상하고 이장 후보 출마를 포기했다.

해당 마을 주민들이 꾸린 수습대책위원회는 마을 이장 연임 제한이 없어 일부 구성원만 마을 자치 권한을 독식해온 문제를 꼬집었다.

수습대책위로 활동한 B(67)씨는 "이번에 물의를 일으킨 유용 문제는 이장 혼자서 한 일로 보기 어렵고 주변 인물이 연관된 가능성도 있다"며 "이장 연임 횟수가 제한되지 않은 탓에 장기근속의 폐단을 막기가 힘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2년의 이장 임기를 3~4년으로 늘리고 무제한 연임제를 중임제로 바꾼다면 이장의 부정행위 등 많은 문제점을 미리 방지하고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구례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이장의 임명 권한은 읍·면장에게 있지만, 이장 선출을 마을 주민에게 일임하고 있다.

이장이 되려면 해당 마을(리·里)에 1년 이상 주민 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는 20세 이상이어야 한다.

임기는 2년으로, 마을 총회를 거쳐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을 뿐 연임을 제한하는 내용은 들어 있지 않다.

사실상 '무제한 연임'이 가능해지면서 구례에서는 이장 절반 가까이(45.5%) 연임을 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구례군 이장 154명 가운데 4년 이상 재임한 이장은 전체의 45.5%인 70명에 달했다.

'4년 이상 6년 미만'이 30명(19.5%)으로 가장 많았고, '6년 이상 8년 미만' 18명(11.7%), '8년 이상 10년 미만' 13명(8.4%), '10년 이상 12년 미만' 7명(4.5%), '12년 이상 14년 미만' 1명, '14년 이상' 1명 등 순이었다.

이장 고령화도 심화하고 있다.

구례지역 이장 절반 가까이(45.5%·70명)는 60대이고, 4명 중 1명꼴(26.6%·41명)은 70대이다.

지방자치 정상화를 위해서는 이장 처우를 개선해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구례지역 이장에게는 매달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 외에도 상·하반기 이장상여금 30만원과 분기별 이장활동비 20만원, 이장회의수당 회당 2만원(월 2차례) 등을 이장에게 지원하고 있다. 하루 1만원 조금 넘는 돈을 지급하는 셈으로, 마을의 크고 작은 일을 도맡는 역할에 비해 처우가 열악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와 달리 구례군 마산면 냉천마을은 행정기관에서 받은 모든 수당을 마을 수익으로 올리고, 이장에게는 공동 재산에서 출연해 월 100여만원 넘는 보수를 지급하고 있다.

구례군 관계자는 "마을 자치규약이 구례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도 안에서 운영되지 않은 마을이 있어 어려움이 있다"며 "이장의 노고와 어려움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제도 개선과 처우 개선 방안을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제22회 광양매화축제가 다음달 10일부터 19일까지 열린다. 〈광양시 제공〉

광양서 3만원 쓰고 500만원 황금매화 잡자

'황금 매화·매실 GET' 이벤트…다음달 9~20일 결제 영수증 응모
아이패드·LF상품권 등 18명에 경품 …남도 숙박 할인 이벤트도

광양시가 4년 만에 개최될 제22회 광양매화축제의 성공적 개최와 방문객의 호응을 이끌기 위한 '황금 매화·매실 GET' 이벤트를 펼친다.

광양매화축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내달 10일부터 열흘간 펼쳐질 광양매화축제에서 500만원 상당 황금매화, 아이패드, LF상품권 등 푸짐한 경품을 총 18명에게 증정할 계획이다.

응모기간은 개막 전날인 9일부터 폐막 이튿날인 20일까지로 숙박, 식당 등 관내 사업장을 이용한 3만원 이상 영수증에 이름, 연락처, 주소 등을 기재해 응모하면 된다.

위원회는 축제장 2개, 광양시청 1개, 읍면동사무소 12개 등 관내 곳곳에 총 15개의 응모함을 설치해 이벤트 참여율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경품은 전라남도와 그 외 관광객으로 구분해 1등(2명)에게 500만원 상당의 황금매화, 2등(2명) 에게 300만원 상당 황금매화, 3등(14명)에게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 및 아이패드 등을 각각 증정한다. 추첨은 유튜브 라이브 방송과 함께 3월 23일 진행할 예정으로 당첨자에게는 실시간 유선으로 안내하고 통화가 불발되면 즉시 재선정한다.

광양시는 이외에도 지역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개별관광객에게 숙박료를 할인해 주는 '남도 숙박 할인 BIG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 축제이벤트와 함께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숙박할인 이벤트 참가 자격은 광주·전남 외 주소를 둔 관광객으로 지정 숙박업소 중 1개소를 선택해 유선 예약한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 후 희망 숙박일 최소 5일 전까지 담당자 이메일(cksgh0924@korea.kr)로 제출하여야 한다.

할인금액은 10만원 이상 4만원, 7만원 이상 3만원, 7만원 미만 2만원 등으로 1회(최대 10박)에 한해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한다.

지정 숙박업소 목록, 참여 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홈페이지 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광양제철 '스마트 공장 전환' 속도

AI 활용 '스마트 예지정비' 개발
이상징후 포착·단계별 고장 예방

광양제철소 압연설비부 직원들이 Smart 예지정비 시스템(PIMS)을 활용해 설비를 점검하고 있다. 〈광양제철소 제공〉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포스코형 스마트 예지정비 시스템(PIMS·POSCO Intelligent Management System)을 개발하는 등 스마트팩토리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광양제철소는 일상점검을 무인화할 수 있는 수준의 정비 실현을 위해 스마트 예지정비 기술을 설비에 적용해 이상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고 단계별로 고장 예방에 적용하고 있다.

제철소 압연설비부에서는 부품의 마모량을 예측함으로써 교체시기를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설비분석 알고리즘을 개발해 점검 효율성을 끌어올린 바 있다.

예지기술의 경우 현장 직원들이 자력으로 지속 개발하고 있다.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녹여내기에 단순히 이론을 구현해내는 것보다 정확하고, 판단 결과에 대한 작업자의 이해도 빠르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술지원 뿐 아니라 계층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지원, 설비담당자들의 개발역량 향상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비 업무를 담당하는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예지정비에 대한 이해부터 실습까지 심도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소스코드 공유 커뮤니티를 운영해 주체적인 학습을 유도하고 있다.

스마트 예지정비로 실시간 설비감시와 복합 모니터링은 물론 이상징후 사전 포착과 수리 연계를 가능케 해 누구나 손쉽고 정확하게 설비점검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점검 자체를 무인화·자동화해 점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더욱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할 전망이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여수 임산부 요가·캘리그라피 교실 운영

내일까지 신청자 접수

여수시가 '모자 보건 프로그램' 신청을 오는 24일까지 받는다.

'소중한 아이·행복한 엄마' 모자 보건 프로그램은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진행한다.

여수에 주소를 둔 임산부와 직장을 다니는 유자녀 여성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임부 요가와 캘리그라피(예쁜 글씨), 모유 수유 교실, 야간 요가 교실 등 4개로 구성됐다.

이들 강좌는 2개월 동안 4회씩 진행한다.

신청은 여수시 홈페이지 'OK통합예약시스템'에서 할 수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전문강사와 참여자들 간 공유를 통해 출산과 양육의 이해도를 높일 기회"라고 설명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군집 드론쇼' 녹동 밤하늘 수 놓는다

고흥군 5월부터 7개월간

고흥군 녹동항에서 오는 5월부터 7개월간 드론 500대가 밤하늘을 수놓는 장관이 펼쳐진다.

고흥군에 따르면 드론 중심도시 고흥의 위상을 높이고 관광 1000만 시대 달성을 위해 소록대교 야경을 배경 삼아 드론 쇼가 진행될 예정이다.

녹동항 드론 쇼는 매주 토요일 오후 버스킹 공연을 시작으로 밤 9시 1차례 10분간 공연한다. 드론 500대가 다양한 모양을 연출하는 대규모 군집 드론쇼가 관광객의 환호 속에 밤하늘을 물들인다.

드론 쇼는 고흥과 관련된 콘텐츠를 포함해 녹동항 야간경관과 어우러지도록 계절별, 기념일별 다양한 내용을 주제로 보여줄 계획이다.

대규모 군집 드론 쇼는 민선 8기 군민과 약속한 공영민 군수의 공약 실천이며, 고흥에서 처음 선보이는 최대 규모 드론 쇼가 될 전망이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

경력단절여성·청년, 취·창업 순천시 상담 프로그램 운영

순천시가 경력단절여성과 청년 취·창업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한다.

우선 순천시는 여성 취·창업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마련해 6개 분야 12명 자문단을 구성했다.

멘토 1명당 여성 5명이 상담을 받을 예정이다. 여성 구직자 수요가 많은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창업, 교육·생산, 홍보마케팅, 사무회계 6분야 멘토가 활동하게 된다.

참가자들은 3차례에 걸친 온라인 상담과 '대면 1회+온라인 상담 1회'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은 순천YWCA여성인력개발센터 누리집(scwoman.kr)에서 할 수 있다.

순천시 창업지원센터 '창업연당'은 매달 찾아가는 창업 멘토링 '창업간당'을 운영한다.

지난 21일에는 순천시 복합문화공간 '청춘창고'를 찾아 입점 창업자를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했다. 찾아가는 창업 멘토링 개설 정보는 순천시 창업지원센터 창업연당 누리집(scbi.kr)에서 찾을 수 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곡성천 생태축 복원 상반기 마무리

곡성 동악산과 섬진강을 연결하는 곡성천이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는 생태 통로로 거듭난다.

곡성군은 동악산 생태축(서식지) 복원사업〈조감도〉이 올해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군은 지난 2020년부터 사업비 80억원을 확보해 실시설계와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지난해 5월 착공했다.

곡성천은 멸종 위기종인 수달과 삵, 하늘다람쥐, 꼬마잠자리 등이 발견되면서 생태적 가치가 뛰어난 곳으로 알려졌다.

군은 이번 생태축 복원사업을 통해 곡성천 생태계를 보전하고 훼손된 자연을 복원하는 데 힘쓸 방침이다.

곡성천 인근에는 2016년 국가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섬진강 침실습지와 동화정원, 섬진강 기차마을 등이 있다.

곡성천 인근 명소 동선을 연계해 인근 주민과 탐방객들에게 풍부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곡성천 생태축과 곡성읍 시가지도 연결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계획"이라며 "곡성천 생물서식을 위한 거점 공간을 복원해 개선하고, 도시 중심부에 부족한 녹지를 확충해 환경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곡성=박종태 기자 pjt@kwangju.co.kr